

2020년 1월 1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대 중국 환율조작국 제외 기대로 상승 미 언론 “미-중 무역협약 서명식 이전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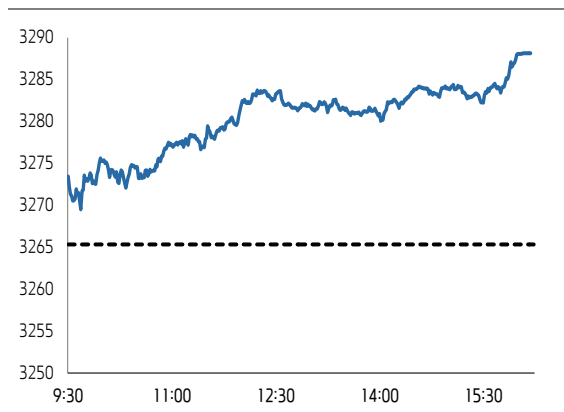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요인: 호재에 민감한 시장

미 증시는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협약 서명식을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되며 상승. 특히 일부 언론에서 서명에 앞서 미 재무부가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긍정적인 소식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는 경향. 업종별로 보면 기술주가 일부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종목 위주로 강세를 보인 반면, 바이오, 헬스케어 업종은 부진(다우 +0.28%, 나스닥 +1.04%, S&P500 +0.70%, 러셀 2000 +0.72%)

시장 조사업체 팩트셋은 4 분기 S&P500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둔화 된 것으로 추정하며 4 개분기 연속 전년 대비 부진할 것이라고 발표. 특히 에너지(yoy -36.8%), 경기소비재(yoy -13.5%), 소재(yoy -10.4%)는 물론 산업재(yoy -8.5%), IT(yoy -1.8%) 등이 부진을 주도. 이런 가운데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S&P500 기준 12 개월 Fwd PER 이 5 년평균(16.7 배)은 물론 10 년 평균(14.9%)를 크게 상회한 18.4 배를 기록. 특히 IT 가 22.3 배를 기록(5y 평균 17.4 배)하는 등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보임. 더 나아가 최근 발표된 ISM 제조업지수, 고용보고서 등 경제지표 또한 부진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펀더멘탈보다는 미-중 무역협상을 비롯해 주요 이벤트와 함께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임. 오늘도 장 초반에는 일부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로 상승 출발 후 차익 매물 소화과정을 보이며 강보합권을 유지했었음. 그러던 도중 일부 언론이 미 재무부가 지난해 8 월 5 일 중국에 부과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할 것이라고 보도하자 상승폭을 확대. 특히 관련 기대는 재무부가 11 월 환율 보고서 발표를 지연하면서 기대가 이어져 왔던 소식인데 이번 언론 보도로 그 기대가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를 감안 시장 참여자들은 악재성 재료는 외면하고 호재성 재료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15 일 미-중 무역협약의 서명식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 지수 | 상승률(%) | Close | D-1 | 지수 | 상승률(%) | Close | D-1 |
|---------|--------|-----------|-------|------|--------|-----------|-------|
| KOSPI | | 2,229.26 | +1.04 | 홍콩항셱 | | 28,954.94 | +1.11 |
| KOSDAQ | | 679.22 | +0.92 | 영국 | | 7,617.60 | +0.39 |
| DOW | | 28,907.05 | +0.29 | 독일 | | 13,451.52 | -0.24 |
| NASDAQ | | 9,273.93 | +1.04 | 프랑스 | | 6,036.14 | -0.02 |
| S&P 500 | | 3,288.13 | +0.70 | 스페인 | | 9,543.90 | -0.31 |
| 상하이종합 | | 3,115.57 | +0.75 | 그리스 | | 919.39 | -0.46 |
| 일본 | | 23,850.57 | +0.47 | 이탈리아 | | 23,896.59 | -0.52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31%

애플(+2.14%)은 아이폰 판매 및 자사주 매입 등을 기반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목표주가가 상향조정 되는데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스카이웍(+3.69%), 퀴보(+2.05%), 브로드컴(+0.66%) 등 관련 부품주도 동반 상승했다. NVIDIA(+3.14%)는 경쟁심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칩 발표에 대한 기대가 높다는 점을 감안 니드햄이 투자의견을 Underperform에서 Hold로 상향 조정하자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 테라다인(+1.97%)도 에버코어가 투자의견을 상향 조정하자 상승했으며, 이러한 요인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1% 강세를 보였다. 테슬라(+9.77%)는 긍정적인 판매량에 기반해 오펜하이머가 목표주가를 385달러에서 612달러로 상향조정하자 강세를 보였다.

반면, 크록스(-1.54%)는 4분기 가이드를 상향 조정하고 신발, 의류 포함 제품 라인을 다양화하는 등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으나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관련 모멘텀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었으며, 올해 성장 전망이 기대를 상회하지 못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매출 출회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유나이티드헬스(-3.14%)를 비롯해 헬스케어 업종은 부담 속 매출 출회되며 하락했다.

주요 ETF

| ETF 종류 | 등락률 | ETF 종류 | 등락률 |
|--------------------|--------|----------------------|--------|
| 원유시추업체 ETF(XOP) | -1.42% | 대형 가치주 ETF(IVE) | +0.36% |
| 에너지섹터 ETF(OIH) | -0.92% | 중형 가치주 ETF(IWS) | +0.74% |
| 소매업체 ETF(XRT) | +0.64% | 소형 가치주 ETF(IWN) | +0.74% |
| 금융섹터 ETF(XLF) | +0.78% | 대형 성장주 ETF(VUG) | +1.07% |
| 기술섹터 ETF(XLK) | +1.34% | 중형 성장주 ETF(IWP) | +0.78% |
|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 +1.47% | 소형 성장주 ETF(IWO) | +0.70% |
| 인터넷업체 ETF(FDN) | +1.31% | 배당주 ETF(DVY) | +0.65% |
| 리츠업체 ETF(XLRE) | +1.22% | 신흥국 고배당 ETF(DEM) | +1.37% |
| 주택건설업체 ETF(XHB) | +0.85% |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 +1.07% |
| 바이오섹터 ETF(IBB) | -1.07% | 미국 국채 ETF(IEF) | -0.12% |
| 헬스케어 ETF(XLV) | -0.35% | 하이일드 ETF(JNK) | +0.04% |
| 곡물 ETF(DBA) | -0.61% | 물가연동채 ETF(TIP) | -0.02% |
| 반도체 ETF(SMH) | +1.40% | Long/short ETF(BTAL) | 0.00%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 S&P 500 | Close | D-1 | D-5 | D-20 |
|---------|----------|--------|--------|--------|
| 에너지 | 454.25 | +0.08% | -1.75% | +1.99% |
| 소재 | 378.97 | +1.36% | +1.55% | -0.44% |
| 산업재 | 704.16 | +0.89% | +0.73% | +2.33% |
| 경기소비재 | 997.67 | +0.32% | +0.36% | +3.60% |
| 필수소비재 | 648.53 | +0.68% | +1.01% | +1.48% |
| 헬스케어 | 1,193.90 | -0.35% | +0.56% | +2.48% |
| 금융 | 513.18 | +0.73% | +0.58% | +0.62% |
| IT | 1,679.09 | +1.34% | +3.24% | +7.85% |
| 커뮤니케이션 | 188.08 | +0.78% | +1.53% | +5.16% |
| 유틸리티 | 328.97 | +0.66% | +1.23% | +3.80% |
| 부동산 | 242.77 | +1.24% | +1.47% | +4.96% |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상 여부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2.23% MSCI 신흥 지수 ETF 는 1.56% 상승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인 467 계약 순매수한 가운데 1.80pt 상승한 302.45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53.81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증시는 1 월 들어 외국인이 1 조 8 천억원을 순매수 하는 등 긍정적인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업종별로 보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된 반도체(+7.21%)가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호텔, 레저서비스(+6.91%), 화장품(+6.43%), 소프트웨어(+4.41%)가 강세를 보인 반면, 에너지(-6.74%), 보험(-5.88%), 자동차(-5.19%), 은행(-4.2%) 등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업종별 차별화가 극심한 양상이다. 결국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반도체 업종에 대해 적극적인 순매수에 기반해 강세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 재무부의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해제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련 보도가 나오자 역외 위안화 환율이 달러 대비 0.5% 내외 강세를 보였으며, 이는 원화의 달러 대비 강세 기대를 높인다. 이러한 원화 강세 기조는 외국인의 순매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한다.

더불어 애플(+2.14%)이 아이폰 판매와 자사주 매입 기대를 이유로 목표주가가 상향조정 되자 강세를 보인 점, NVIDIA(+3.14%)가 CES 에서의 긍정적인 평가 속 투자의견 상향 조정 되자 강세를 보이는 등 개별 기업 호재성 재료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힘입어 최근 매출 출회되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31% 상승하는 등 강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상 여부 및 외국인의 IT 업종에 대한 수급 동향 등에 따라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고용동향지수 하향 조정

12 월 컨퍼런스 보드의 고용동향지수(ETI)는 110.51 에서 109.68 로 하향 조정 되었다. 컨퍼런스 보드는 이에 대해 2018 년 여름 이후 플랫폼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견고한 고용시장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하락은 8 개 구성 요소중 5 개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발표해 향후 고용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하락

국제유가는 미-이란 우려가 완화되자 매물이 지속되며 하락했다. 한편, 난방유에 대한 겨울철 수요가 적었다는 점이 부각된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난방유 수요 부진은 재고 증가 우려를 높인다는 점에서 부담을 줬다.

달러화는 보험권 등락을 보인 가운데 엔화는 안전자산 선호심리 악화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파운드화는 BOE 위원중 하나가 경제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이번 달 금리인하에 투표할 것이라고 언급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위안화는 환율 조작국 해제 기대를 높이는 보도가 나오자 달러 대비 0.5% 내외 강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이번 주 미-중 무역협상 서명식을 기다리며 소폭 상승했다. 한편, 매파 성향의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는 “저금리는 너무 많은 금융 위험을 유발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고, 중도 비둘기 성향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소비 부문이 탄탄하며 경제는 잘 진행하고 있으며, 과열로 보지는 않아 연준은 관망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발언은 영향이 제한되었다.

금은 미-이란, 미-중 불확실성 완화 기대가 높아지자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구리 등은 상승했으나, 국제유가 하락 여파로 알루미늄 등 일부 품목은 하락하는 등 혼조 양상을 보였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84% 상승했으나, 철근은 0.31% 하락했다.

| 주요 상품 | 종가 | D-1(%) | D-5(%) | 주요 통화 | 종가 | D-1(%) | D-5(%) |
|-------|----------|--------|--------|---------------|---------|--------|--------|
| WTI | 58.08 | -1.63 | -8.20 | Dollar Index | 97.371 | +0.02 | +0.72 |
| 브렌트유 | 64.20 | -1.20 | -6.84 | EUR/USD | 1.1136 | +0.13 | -0.54 |
| 금 | 1,550.60 | -0.61 | -1.16 | USD/JPY | 109.93 | +0.44 | +1.44 |
| 은 | 17.996 | -0.60 | -1.01 | GBP/USD | 1.2989 | -0.57 | -1.38 |
| 알루미늄 | 1,798.00 | -0.44 | -1.91 | USD/CHF | 0.9709 | -0.17 | +0.26 |
| 전기동 | 6,290.00 | +1.48 | +2.47 | AUD/USD | 0.6903 | +0.03 | -0.53 |
| 아연 | 2,378.00 | 0.00 | +2.30 | USD/CAD | 1.3056 | +0.05 | +0.70 |
| 옥수수 | 389.50 | +0.97 | +1.23 | USD/BRL | 4.1426 | +1.09 | +1.90 |
| 밀 | 562.25 | -0.40 | +2.23 | USD/CNH | 6.8827 | -0.47 | -1.24 |
| 대두 | 942.25 | -0.40 | -0.26 | USD/KRW | 1156.00 | -0.46 | -1.37 |
| 커피 | 114.55 | -3.70 | -6.22 | USD/KRW NDF1M | 1153.81 | -0.37 | -1.10 |

| 10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10년물 금리 | 종가(%) | D-1(bp) | D-5(bp) |
|---------|--------|---------|---------|---------|-------|---------|---------|
| 미국 | 1.839 | +1.92 | +2.98 | 스페인 | 0.476 | +3.90 | +8.50 |
| 한국 | 1.732 | +2.30 | +17.50 | 포르투갈 | 0.426 | +3.60 | +6.10 |
| 일본 | 0.000 | -1.00 | +1.10 | 그리스 | 1.379 | +3.30 | -1.30 |
| 독일 | -0.159 | +4.00 | +12.80 | 이탈리아 | 1.374 | +5.50 | +1.50 |